

2009 필리핀 자료집

Kumusta ka

▶ 목차 ◀

▶ 일정 ◀

- 필리핀 체험학습 개요 ..... 2
- 전체일정 ..... 5
- 두마게티 일정 ..... 6

▶ 기본지식 ◀

- 역사 ..... 7
- 국기 ..... 10
- 전통의상 ..... 11
- 특징 ..... 12
- 경제 ..... 14
- 축제 ..... 16
- 물가 ..... 18
- 날씨, 기후 ..... 25
- 음식 ..... 26
- 놀이문화 ..... 32
- 음악 ..... 35
- 교통 ..... 37
- 따갈로그 회화 ..... 40

▶ 공항정보 ◀

- 출국절차 입국절차 ..... 41
- 입국심사카드 작성 ..... 44 ✓
- 기본적인 기초 영어 ..... 45

▶ 알아가기 ◀

- 조심해야 할 병 ..... 47
- 우리들의 생활규칙  
꼭 지켜야 할 tip ..... 49

▶ 경험자들의 조언 ◀

- 03학번이 전하는  
필리핀 체험 학습 가이드 ..... 50
- 04학번이 전하는  
필리핀 체험 학습 가이드 ..... 52
- 05학번이 전하는  
필리핀 체험 학습 가이드 ..... 54

▶ 기타 ◀

- 민요가사 ..... 55
- MEMO

## 2009년 4학년 필리핀 체험 학습 개요

### >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명 : 2009 필리핀 문화 교류
2. 프로그램 주관 : 제천 간디학교
3. 참가자 : 4학년 11명, 5학년 1명, 손쌤, 은혜쌤
4. 장소 : 두마게테(Dumaguete), 까가얀 데 오로(Cagayan De Oro; CDO), 까미귄 (Camiguin), 민다나오 주 송코 딸란딕 부족 마을 (Talaandig tribal territory)
5. 기간 : 2009년 9월 10일 ~ 11월 6일
6. 프로그램 파트너 : 칼리카산 교육 센터(Kalikasan Educational Center), 산청 간디 중학교, 금산 간디 중학교, 에니그마타(Engigmata Creative Circle)

### > 프로그램 목적

-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받아들인다.
- 다른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대안적 삶의 방향을 찾는다.
- 아시아인으로서의 삶을 공유, 이해하고 나아가 세계인과의 소통의 경험을 쌓는다.

### > 프로그램 목표

-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키운다.
- 의사소통으로서의 영어 학습을 통해 국제적 의사소통의 자신감을 갖는다.
- 필리핀의 평화, 예술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체험한다.

### > 프로그램 소개와 일정

#### 1. 두마게테 프로그램

의사소통 기술로서의 영어를 배우고 필리핀 프로그램의 본 목적인 의사소통과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을 갖는다. 현지 교사들로부터 영어는 물론, 필리핀 사회, 문화, 역사를 배우고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지역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중소도시인 두마게테와 발렌시아의 도시 문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법,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 지역 예술가들과의 교류 및 우리 문화 소개, 지역 축제 참가를 통한 문화 교류, 빈민 봉사 활동, 지역 청소년들과의 다양한 만남 등이 예정되어 있다.

- 프로그램 진행 : 현지 교육 법인 깔리카산 교육 센터
- 장소 : 발렌시아 봉아오 마을 및 두마게테
- 기간 : 9. 10(목) ~ 10. 23(금)
- 프로그램 및 일정 : 세부 일정 참조

## 2. 까미권 프로그램

민다나오 북부의 작은 섬 까미권의 생태 호스텔인 에니그마타 트리 하우스에서 관광객에 찌들지 않은 아름다운 섬 문화와 생태를 체험하고 예술 워크숍, 지역 학생들과의 교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갖고 민다나오에 들어가기 전 휴식도 겸한다. 까미권으로 가기 까지 두마게테-세부-까미권으로 이어지는 약 20시간의 여행을 우리 스스로 꾸려 나가고 장시간 필리핀 대중 교통을 경험해야 한다.

- 프로그램 진행 : 에니그마타 (Enigmata Creative Circle)
- 장소 : 트리 하우스
- 기간 : 10. 23(금) ~ 10. 30(금)
- 프로그램 :

내적 언어(Inner Language) : 지역 사회의 음악가, 예술가,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예술 교감.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를 다시 만들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 예술작품 그 자체이자 치유의 장소인 트리 하우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섬 생태 여행 : 바다, 산, 폭포, 자연 온천 등 까미권에 가득한 자연 맛보기. 자이언트 클램 서식지와 해상 보호 구역 스노클링 등 생태 체험  
 문화 체험 : 지역 사회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소박한 섬 문화를 체험한다.  
 커뮤니티 프로젝트 :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만들어보는 지역사회 도서관  
 바이오 조각 공원 체험 : 트리 하우스에 있는 다양한 재활용/ 생태 예술품을 경험하고 제작

## 3. 딸란딕 부족 체험

까가얀 데 오로에 들러 래프팅 등 자연 체험을 하고 까가얀 데 오로를 거쳐 민다나오 내륙의 고산 지대에 있는 소수 부족인 딸란딕 부족의 마을을 찾아 정체성을 지켜 나가며 살고 있는 부족민들의 삶을 체험하고 공동체 문화와 예술 체험을 한다.

누구 하나도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음악과 미술, 춤 등 전통문화와 예술을 온몸으로 향유해 나가는 그들의 삶에서 평화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프로그램 진행 : Waway Saway, Rosalie Zerrudo

- 장소 : 딸란딕 부족 마을

- 기간 : 10. 30(금) ~ 귀국 전

- 프로그램 :

지역사회 문화체험 : 딸란딕 부족의 지도자들과의 만남, 환영의식, 지역 주민들과의 문화 예술 교류. 우리가 준비해간 우리 문화와 그들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융합의 시간을 갖는다.

soil painting 프로젝트 : 그 지역 미술의 주재료인 갖가지 토양으로 미술 작품을 만들어 본다.

악기 워크숍 :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적 영감을 끌어주는 주요 악기인 대나무 피리와 쟈뎀베를 직접 만들어 보고 지역 예술가들로부터 음악을 배운다.

## ▶ 전체일정

### 1. 일정

- 8월 18일 입교. 1박 2일 팀워크 다지기  
8월 19일 개학. -3주간 체험학습 본격적으로 준비.  
-이매진 피스팀 임영신쌤과 교장쌤의 대화.  
-필리핀 여행한 선배와의 대화  
-영어회화, (필리핀 원어민과)따갈로그 공부  
-수영장 체험  
-필리핀에서의 생활규칙 정하기, 발표회 등  
9월 03일. 은혜T 선발 출국. 현지 환경 세팅  
9월 05 - 09일. 귀가, 출국 준비.

**출국일 2009년 09월 10일. 오전 8시 30분 비행기.**  
**귀국일 2009년 11월 06일. 저녁 7시 20분 한국 도착.**

- 9월 11일 - 13일. 두마게테 오리엔테이션.  
9월 14일 - 10월 23일. 두마게테 6주 프로그램.  
10월 24 - 25일. 민다나오로 이동 및 휴식(세부를 통해 까마귀 이동시에는 배편 이용)  
10월 26 - 11월 06일. 민다나오 혹은 기타 프로그램 2주.  
11월 06일. 귀국  
11월 06일 - 15일. 가정학습 및 입교  
11월 16일 - 12월 13일(겨울방학). 기말 발표 및 준비

### 2. 두마게티 프로그램 및 활동 계획

- \* 두마게티 어학 프로그램 : 별지 참조
- \* 민다나오 활동 : 까마귀 1주: 생태체험-까가안 데 오로(부키드논, 와와이씨 부족)

### 3. 예산

학교지원금 : 3,000,000원  
식비 : 2160원\*3끼\*43일\*12명 = 3,343,680원  
학생참가비 : 3,500,000원

Time	Mon	Tue	Wed	Thu	Fri	Sat	Sun		
6:00 - 6:50	waking up Time☺					SHORT TRIP	REST DAY ♥		
6:50 - 7:20	Cleaning Time								
7:20 - 8:00	Breakfast Time (Note: Breakfast is only served until 7:40) 8:00 - 8:30 Breakfast time on weekends								
8:00 - 8:30	Teacher's Meeting / Self directed Learning (Students)								
8:30 - 9:00	Advisory Time								
9:00 - 10:20	English Whole Group Activity	English Class	English Class	English Class	Community Extension program (with Ricky)				
10:20 - 10:30	Snacks								
10:30 - 11:50	Philippine Culture	English Class	English Class	English Class	Community Extension program (with Ricky)				
12:00 - 1:00	Lunch Time♥								
1:20 - 2:00	Moving Time☺								
2:00 - 4:00	Community Project 1 (with T. Jocelyn)	Aesthetic Sensibility Class			Community Project Class			Sports Activity swimming/ snorkeling/ tennis/ badminton / basketball/ etc	Free schedule (filler)
		A s y a n o	ban dam ang ga	Hi ka ban					
4:00 - 5:00	Moving Time								
5:00 - 6:00	Free Time								
6:00 - 6:40	Dinner Time♥								
6:40 - 7:00	Cleaning Time (Common Areas)								
7:00 - 8:30	Sharing Time/ Free Time	Sharing Time/ Free Time	Gandhi Meeting	Sharing Time/ Free Time	Movie				
8:30 - 10:00	Silent Time☺ / Going To Bed♥								

### 두마게티 6주 프로그램 스케줄

## ▶ 필리핀 기본 지식

### 필리핀 <역사>

#### 1. 선사시대

- 필리핀의 선사시대는 약 3만 년 전에서 15만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는 팔라완섬의 타본 동굴에서 발견된 천 년 전의 구석기 시대 사람의 두개골이다. 이것은 아시아 대륙으로 부터 온 필리핀의 원주민인 네그리토족 또는 아에타족의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기원전 5천 년경에는 대륙과 이어져 있던 마지막 육교가 바다에 침몰하여 필리핀 제도는 아시아 대륙으로 부터 분리되고 말았다.

기원전 1500-500년 사이에는 인도차이나로 부터의 이민이 다섯 번 있었다. 그 마지막 이민은 구리와 청동의 도구를 가져와 루손섬 북부지방, 바나웨에 계단식 논밭(라이스 테라시스)을 일궈는데 이것은 오늘날까지 현대인의 문명으로도 쉬이 풀리지 않는 불가사의중의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거대하고 또 웅장한 규모를 이루고 있다.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후 1500년에 걸쳐서는 말레이인이 건너와 물소를 써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나중에는 인도와 중국과의 교역도 시작하였으며 1380년에는 이슬람교의 물결도 상륙하였다. 민다나오는 이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섬이 되었다.

#### 2. 스페인 통치시대(역사시대)

- 마젤란이 스페인으로부터 항해해 와서 1521년 3월 사마르 섬에 도달해 필리핀을 발견하고 그해 4월에 시부섬 가까이인 막탄섬에 상륙하였으나 추장 라뿌라뿌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로 인해 라뿌라뿌는 지금도 필리핀에게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다. 1543년에는 빌라로보스가 사마르섬에 도달해 당시의 스페인 황태자의 이름을 비슷하게 따서 필리피나스라고 명명한 것이 필리핀으로 바뀌게 되었다.

1565년엔 레가스피가 시부섬에다 처음으로 스페인의 식민지를 만들었다. 이로부터 400년간에 걸친 스페인 통치시대가 시작된다. 레가스피는 1571년 근거지를 마닐라로 옮겨와 거의 모든 필리핀 섬들을 스페인의 지배하에 두었다. 다만 이미 확고한 이슬람 문화권에 들어간 민다나오섬과 술루제도는 스페인의 지배가 미치지 못하였다. 스페인은 그리스도교의 포교를 열심히 하여 각지에 카톨릭 교회를 건설하고 민중을 교화시켜 나갔다. 한편, 스페인 식민자들은 수출을 목적으로 한 작물 재배에 힘을 기울여 부를 쌓았다.

그러는 동안 많은 필리핀 젊은이들이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 유학하여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배워 와서 필리핀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활약하는데 그 선두에 선 사람이 호세 리잘이다. 그는 철저히 문필로 싸웠지만 필리핀 해방운동이 발전해 가자 스페인 당국은 그를 위험인물로 보고 급진혁명가들의 반란에 가담했다는 구실을 붙여 총살형에 처했다.

이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무력투쟁이 확산돼 갔다. 이 혁명군의 선두에 선 사람은 보니파시오인데 1897년3월에는 그 지도자가 에밀리오 아퀴날도(Emilio Aguinaldo) 장군으로 바뀌게 되어 1898년 6월 12일 장군이 마닐라 남쪽 카비떼에서 독립을 선포하고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327년이라는 기나긴 식민지 시대를 마감하고 독립을 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독립은 불완전한 독립으로 뒤이어 진 미국의 개입으로 미완의 독립으로 그치고 말았다.

### **3. 미국식민지 시대**

-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이 일어나자 필리핀은 미국에 협력해 싸웠다. 그러나 이해 10월에 미국은 아퀴날도의 혁명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스페인과 강화조약을 맺고 만다.

당시의 미국 돈 2천만 달러로 스페인은 필리핀을 미국에 팔아 넘겼던 것이다. 이리하여, 미국의 지배하에 들어가자 필리핀 사람은 이번에는 반미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 운동이 확산되자 미국은 1934년에 필리핀 독립 법을 만들어 10년 후에 필리핀을 독립시키기로 함으로써 이듬해 독립 준비 정부인 필리핀 공화국을 탄생시키고 케손(QUEZON)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 **4. 일본 침략시대**

- 1946년 7월4일의 완전 독립의 날을 앞두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번에는 일본군이 필리핀을 침략하였다.

일본군은 대일 협력정권을 세웠으나 각지에서 일본군에 대한 테러가 속발하고 항일 게릴라 등에 의한 저항이 심화됐다. 다행히 일본군이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오랫동안의 식민지 지배로부터도 벗어날 기회가 닥쳐왔다.

### **5. 독립의 달성**

- 1946년 7월4일 필리핀은 참된 공화국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독립해 로하스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나 전쟁 중 일본군에 의한 피해는 여간 크지 않았다. 1948년에는 로하스의 뒤를 이어 퀴리노가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전시중 항일 인민군으로서

싸운 무장농민 주체의 인민해방군은 중부 루손섬을 중심으로 상당한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방상 막사이사이의 미국의 도움을 받아 완전히 이들을 평정하여 크게 인기를 얻어 1953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비행기 사고로 죽고, 그 후 1957년에는 가르시아가, 1961년에는 마카파갈이 각각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어서 1965년에 제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르코스는 민주주의적 활동을 금하면서까지 21년에 걸쳐 강권정치를 마음대로 했다.

1983년에 그의 오랜 정적이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떠오른 베니그노 아키노가 미국에서 마닐라에 도착하자마자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로 인하여 국내는 혼란의 극에 빠져들게 되고 마르코스의 독재와 부정은 말이 아닌 지경이 되었다.

그는 1986년 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정을 저지른 것이 발각되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피플파워가 촉발, 측근들과 함께 미국에 망명하게 되고 마르코스의 대립후보였던 베니그노 아키노의 미망인인 코라손 아키노가 정권을 잡게 되었다. 그녀는 필리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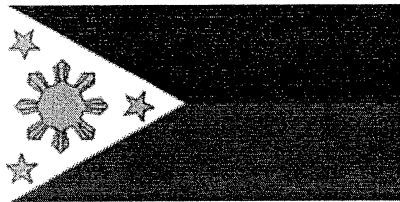
아키노 정권하에서는 1989년의 쿠에타 미수사건이 있기는 하였으나 정권이 비교적 안정되고 경제도 상승국면을 걷고 있었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코라손 아키노의 지지를 받은 피델 라모스가 당선되었다. 1998년엔 라모스 정권의 부통령이었다가 당선된 조셉 에스트라다이다. 조셉에스트라다는 영화배우였고 산후안 시장을 오랫동안 역임했다. 그러나 재임기간동안의 각종 부패사건과 독직사건들에 연루돼 국민들의 거센 저항과 봉기가 위기일발의 상황에 까지 이르른, 이른 바 제2차 피플파워운동으로 인해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 없었던 에스트라다 정권은 대국민성명하나 남기지 못한 채 파식강의 전용 호위보트를 타고 산후안으로 피신함으로써 그 막을 내렸다. 이후 산 디간 바안(공직사회 비리 재판소)의 지속적인 수사로 인해 권좌에서 물러남으로써 끝나지 않고 재판으로 이어짐에 따라 피의자로 검찰에 수차례 불려나와 재판을 받게 되고 그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은 아로요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였고 필리핀의 군부와 실질적인 권력층도 그녀를 도우기로 힘을 모음으로써 '피플파워 2'로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이 권력의 전면 에 등장하게 된다.

## 필리핀 <국기>

오늘날의 필리핀 국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1897년 당시 홍콩에 망명 중이던 Emilio Aguinaldo 장군에 의해 디자인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Dona Marcela Marino de Agoncillo 부인이 그녀의 딸인 Lorenza와 그리고 필리핀 국가영웅인 호세 리잘(Jose Rizal)의 조카인 Mrs. Delfina Herbosa de Natividad의 도움을 받아서 비단 천으로 박음질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기는 1898년 6월 12일 Kawit(Cavite주)에서 독립선언을 할 때 처음으로 필리핀의 공식 국기로서 게양이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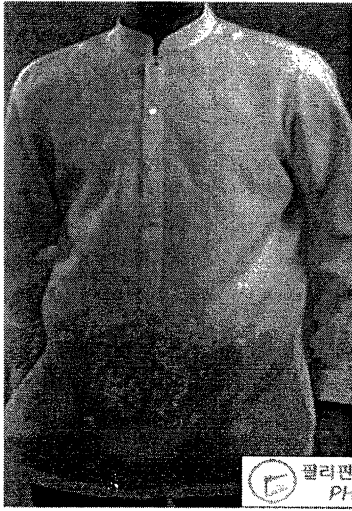
삼각형 안의 황색 태양은 자유를 뜻하고 여덟 갈래의 빛은 스페인에 대하여 최초로 쫓겨난 8개 주를 의미한다. 3개의 별은 필리핀을 크게 나눈 세 지역인 루손(Luzon), 비사야스(Visayas), 민다나오(Mindanao)를 뜻하며, 왼쪽의 백색(White)바탕은 평등(Equality)과 단결(Fraternity)을 뜻하며, 위쪽의 청색(Blue)바탕은 평화(Peace)와 진실(truth), 정의(Justice)를 뜻하고, 적색(Red)바탕은 애국심(Patriotism)과 용기(Valor)를 뜻한다고 한다.

필리핀에선 다른 나라에는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국기 사용법이 있다고 하는데, 평화 시에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색이 위, 적색이 아래에 위치하지만 전쟁 시에는 그 반대로 적색이 위로 가고 청색이 아래로 가도록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다.



필리핀국기

## 필리핀 <전통의상>



바롱은 남녀별로 지칭하는 말이 다른데, 남성 의상은 Barong Tagalog, 여성 의상은 Baro't Saya 라 불린다.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서구화된 보편적인 평상복을 주로 입지만, 격식있고 중요한 자리에서는 전통의상인 바롱을 즐겨 입는다.

바롱은 얇고 투명한 천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착용 시는 바롱 안에 셔츠를 필히 입고 바깥에 바롱을 입는다.

또 바롱의 하단을 바지 안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항상 바롱을 바깥으로 내놓고 입는다.

그리고 투명한 천을 사용하게 한 것은 옷 속에 무기를 감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주머니를 못 만들게 한 것은 도둑질을 못하게 하기위한 것이다. 보통 파인애플과 바나나 껍질의 실을 뽑은 것으로 만들고 한 벌을 전통대로 제작을 하려면 3일이 걸리며 4세기에 걸쳐서 여러 번 변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아직 옛 특징이 남아 있다고 한다.

주로 흰 색의 천을 사용했었지만 요즘은 색상이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한다.

## 필리핀 <특징>

### ▶ 필리핀 집의 특징과 생활비

도시의 빌리지에 있는 필리핀 집들은 외국인에게 다소 낯선 광경이다. 담벼락은 높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쳐져 있으며 정문과 후문에는 두 세 개의 열쇠가 채워져 있다. 이것이 모두 안전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는 좀도둑이나 강도, 심지어 총기로 무장한 범죄자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밤에 마당에 옷을 걸어 놓은 채로 두거나 신발을 벗어 두면 아침에 옷과 신발이 사라지는 일은 놀랄 일이 아니다. 유니폼을 입은 가드들이 24시간 경계근무를 서고 높은 담들로 둘러 싸여 있는 마닐라의 빌리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리핀에서 살아가야 할 외국인들은 이런 이유들을 하나하나 알아가야 한다.

### ▶ 필리핀 집의 이중성

필리핀 사람들의 집은 필리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양쪽으로 열리는 철 대문이 도로 앞으로 나있고 그 철대문의 한 쪽편에는 차 없이 오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이 또 달려 있다. 또한 이렇게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는 작은 문에는 안에서 밖에 누가 왔는지 볼 수 있도록(주로 헬퍼가 문을 열어주므로 헬퍼가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작은 구멍이 있다. 필리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나 방문판매원 등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나 손님의 경우에는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전통이다.

### ▶ 외면과 내면

필리핀 사람들은 외면과 내면의 세계를 구분한다. 외면은 'mukha(무카)', 내면은 'loob(루브)'이라고 부른다. 주간마닐라에서 얼마 전에 다룬 내용 중에 '우땅나루(Utang na loob)'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은 '마음의 빔'이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즉, 마음의 빔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짐이 된다는 뜻이다. 겉으로는 이런 마음의 빔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큰 작용을 한다. 필리핀에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다.

필리핀 집의 건축양식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구분이 명확하다. 손님을 맞이하는 거실 등의 장소와 개인 공간은 명확히 구별되며 손님은 거실에서는 자유롭게 다녀도 좋지만 거실이외의 개인적인 장소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주인의 허락을 받아

야 한다. 예를 들어, 방을 구경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주인은 갑자기 방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의 법석을 떠다. 손님에게 보여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적인 공간으로 구분되는 곳은 거실을 제외한 부엌, 안방, 서재, 욕실, 뒷마당, 헬퍼방 등이 모두 해당된다. 필리핀 사람들은 항상 가장 잘 정돈된 것만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

외국인을 좋아하며 친절하고 노래, 예술을 좋아한다.

감정적으로 예민해 언성을 높여 싸우거나 하면 자존심이 크게 상한다고 한다.

파티를 엄청 좋아하고 주기적으로 닭싸움을 즐기고는 한다.

▶ 필리핀 화폐



환화로 계산 할 때는 계산하기 편하게 무조건 27을 곱하면 페소가~>원으로 바뀐다.

10페소는  $x 27 = 270$

20페소  $x 27 = 414$

50페소  $x 27 = 1350$

100페소  $x 27 = 1350$

500페소  $x 27 = 13,500$ 원

1000페소  $x 27 = 27,000$ 원

Tip. 환전할 때 가끔 500페소들 몇 장씩 빼고 준다고도 하니 주의하기

[지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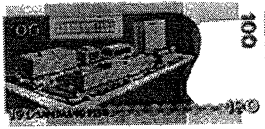
10페소 (현재 사용하지 않음)



20페소



50페소



100페소



200페소



500페소



1000페소



2000페소

## 필리핀 <경제>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 비옥한 토지 등 천연자원과 해양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다. 노동인구의 40% 이상이 농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 플랜테이션(Plantation) 농업이 유명하다. 대표적인 작물로는 쌀, 옥수수, 바나나, 설탕과 사탕수수, 카사바 등이 있으며 마(麻) 생산은 세계 1위이다. 그러나 일부 계층만이 부(富)를 독식하는 사회 구조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빈곤과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 필리핀은 독립 이후 1970년대까지 아시아의 경제를 이끄는 경제 선도국가이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창설한 주도한 국가였다. 하지만 마르코스 정권하에서 정경유착이 심화 되면서 경제구조가 왜곡화 되었고 비효율적인 경제정책이 수립되었다.

1970년대 들어 필리핀 경제는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재선을 염두해 둔 마르코스는 방만한 지출로 재정 위기를 자초하였고, 1972년 계엄령 선포 후 자신의 측근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국가주도의 경제발전계획으로 전환했다. 신사회(New Society)의 창조를 주장하며 선포한 계엄령 이후 5년간 각종 투자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수출촉진지역이 설치되는 등 미국과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지에 힘입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 개발에 투입될 자금이 대부분 공정대회차입의 형태로 마련되어 대외 채무액이 겹잡을 수 없이 증가하였고, 이 차관조차도 친 마르코스

국영기업으로 유입되어 경제 실무자들의 부패를 조장했다. 설상가상으로 1979년 제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자 필리핀의 경상수지 적자는 심화되었다. 1983년 아키노 사후 필리핀 정부는 정치적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는데 불안해진 정정을 틈타 다량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급기야 1983년 10월, 필리핀 정부는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이주하였다.

1986년 대통령직에 오른 아키노는 국영 및 정부 통제 기업을 사유화하는 경제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시장 논리에 입각한 세계 개편과 무역과 투자제도를 자율화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빈곤을 퇴치하고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개혁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과제는 경제개발 6개년계획(1987~1992)을 통해 다소 해결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외채증가와 기업 분야의 부채를 정부가 담당하면서 재정적자는 심화되었다. 더군다나 개혁에 반대하는 군부가 7차례에 걸친 쿠데타를 일으켰고, 1990년대에 들어 발생한 극심한 가뭄과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시국이 불안해 졌다.

1992년 취임한 라모스 대통령은 2000년까지 모국(母國)을 신흥공업국으로 진입시킨다는 목표 하에 '필리핀 2000 비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경제개발 6개년 계획(1993~1998)을 시행하였다.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국민의 빈곤 경감, 사회적 평등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이었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재정 위기로 인해 폐소는 급격하게 평가절하 되어 국제시장에서 필리핀 제품의 구매력이 감소되었고, 국내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불경기가 이어졌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발생한 엘리뇨 현상, 인도네시아 연무, 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는 필리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필리핀 <축제>

필리핀은 축제의 나라이다.

일 년 내내 필리핀 어딘가에서는 축제가 치러지고 있다. 몇몇 도시들의 축제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다. 예를 들면 카리보(Kalibo)지방의 아티-아티한(Ati-atihan), 케손 록반(Lucban, Quezon)의 파히야스(Pahiyas), 블라칸 보카우에(Bocau, Bulacan)지방의 하천축제, 팜팡가 산페르나도(San Fernando, Pampanga)지방의 크리스마스 이브 등불 축제, 가판(Gapan)지방의 물소 축제 등이다.

이러한 도시 축제는 대개 도시의 추후원자를 기리는 동안에 펼쳐진다. 과거에 이들 몇몇 축제는 아마도 비, 풍성한 수확, 혹은 많은 어획을 기원하는 기원자와 관련된 의식이었다.

팔라완(Palawan)섬의 소수 문화집단은 곡식을 심기 위해 삼림 지역을 벌목하는 동안에 행사를 치른다. 초기 천주교 선교자들은 천주교 교리와 의식을 도입함으로써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 몇몇 지방의 관습을 통제했다.

다른 한편 오늘날 축제에서 물세례는 과거의 불교의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행사는 태국의 치앙마이(Chiang Mai) 양력설 행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 축제의 의미

필리핀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은 축제와 함께 어우러진다. 일시적으로 축제를 이용한 상업적인 기업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번성을 하지만, 일부 사람들, 즉 장사꾼, 놀이꾼, 미용사, 약장사, 소매치기, 거지와 같은 사람들이 이 축제에서 저 축제로 옮겨 다닌다. 특히 정치인들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축제를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 타 지역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한다.

저명한 시민들은 축제기간을 통하여 존경을 받는다. 모든 것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기이다. 즉, 집을 수리하여 깨끗이 하고 거리와 공공장소가 새롭게 단장된다. 종교적인 각종 조각물들을 다시 칠하거나 새 옷을 갈아입힌다. 바로 축제가 민속 예술과 창조성의 돌파구가 된다. 사람들은 최고로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도시는 활기를 띤

다.

축제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도시의 주요 인사에 의해 주의 깊게 논의되어 조직되고 재정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연습된 후 실시된다. 미리 축제 계획이 수립되고 책임이 할당된다. 개인이나 단체는 돈이나 서비스를 지원한다. 미인선발대회를 위한 표 판매, 사회 행사나 패션쇼의 입장 요금으로 자금을 마련한다.

후원자들은 기부금을 내놓는데 이는 축제예산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특히 교회 행사 중 식사에서부터 교회 장식과 여러 날의 집 개방과 아울러 식사대접에 이르기까지 도시 주요 인사들의 지지 없이는 축제가 열릴 수가 없다. 때때로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좀 더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하도록 후원한다. 그리고 손님을 음식을 더 많이 차린 집으로 안내하는 풍습은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 축제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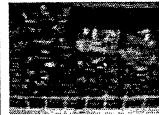

축제를 하기 전 필리핀 사람들은 집을 산뜻하게 페인트칠을 하고, 커튼을 바꾸고, 혹은 바닥과 창문을 깨끗이 닦아 가능한 한 집을 단정히 하려고 애쓴다. 축제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 물론 돌아오는 아들과 딸은 친구를 데리고 온다.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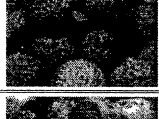

일 년 내내 살찌워진 돼지는 축제 제물용으로 쓰여진다. 필리핀에서 돼지구이(레촌: Lechon)음식은 미국인이 추수 감사절에 칠같이 중요하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축제 기간 때 음식의 사회적 중요도는 매우 크다. 초기 필리핀의 도시축제는 스페인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을 도시에 모여들게 하여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위한 선교용 행사였다고 한다.

케손(Quezon)의 사리아야(Sariaya)에서 그 지역을 후원하는 성인의 상이 지나갈 때, 아이들은 거리를 따라 대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자나 사탕을 얻기 위해 이리저리 부산을 피운다. 라구나(Laguna)의 파킬(Pakil)에서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행렬하면서 투룸바(turrumba)라 불리는 독특한 춤을 춘다. 농부의 수호성인 산 이시드로 라브라도르(San Isidro Labrador)가 존경되는 지역에서 축제행렬은 화려하게 장식된 소들이 끄는 마차들의 행렬이다.

## 필리핀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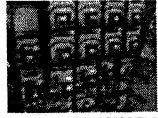







++2009년 7월 기준

식료품		필리핀	환율 (1페소=30원)
	쌀	20Kg 기준 900페소	27,000원~
	달걀	한 판 12개 62~65페소	1,860~1,950 원
	식빵	27~30페소	810~900원
	호밀식빵	60페소	1,800원
	우유	1L 70~80페소 / 250ml 25 페소	250ml 750원
	라면	7.5~12페소 (양이 한국라면의 절반정도)	225~360원
	망고	1Kg 45~68페소	1,350~2,040 원
	애플망고	60페소/1kg	1,800원
	인디언망고	25페소/1kg	750원









	파인애플	30~40페소	900~1,200원
	두리안	83/kg(한 개당 330~400ps)	2,490/1kg
	바나나	(20개 한 묶음) 70페소~110페소	2,100~3,300원
	갈라마시	20~30개 묶음 /15p	450원
	망고스틴	없음 성수기 60p/kg 비성수기 400p/kg	1,800~12,000원
	딸기	620페소/kg	18,600원
	사과	4개 120p	3,600원
	천도복숭아	3개 166	5,000원
	리치	35~40페소/kg	1,050~1,200원
	람부탄	35~40페소/kg	1,050~1,200원

	파파야	60페소/kg	1,800원
	메론	60p/kg	1,800원
	수박	103페소	3,090원
	오렌지	78페소	2,340원
	용과	88페소	2,640원
	배	40페소	1,200원
	포도	115페소	3,450원
	커피	Nescafe Gold (200g), 병 : 293페소	8,790원
		네스카페 클래식 (200g)-215p	6,450원
		네스카페 클래식 (100g)-50잔 70p	2,100원
		Nescafe Gold (100g), 리필용: 52페소	1,560원
	커피프림	Nestl'e Coffee mate (400g), 병 : 117페소	3,510원
		Nestl'e Coffee mate (454g), 리필용: 110페소	3,300원

	탄두아이	30p/375ml	900원
	응료수 C2	335ml 14페소 / 1L 24.6페소	1L 740원
	립톤 아이스티	1.5L 41.25페소	1,240원
	트로피카나	1L 45.5페소	1,370원
	코카콜라	1.5L 36~37페소	1,100원
생필품		필리핀	환율 (1페소=30원)
	세숫비누	10페소~50페소 정도 (중급 크기)	300~1,500원
	샴푸(팬틴)	90페소~110페소 (200ml 기준)	2,700~3,300원
	휴지 날개	7~15페소	210~450원
	휴지 24롤	165페소	4,950원

	비누곽	8페소~12페소	240~360원
	건전지	AA형(4개) :120페소	3,600원
		AAA형(4개) : 52~57페소	1,560~1,710 원
	음악 CD	450페소	13,500원
	음악 테이 프	150페소	4,500원
	영화 CD (이미테이 션)	70페소	2,100원
	극장 영화비	일반 100페소	3,000원
	공중전화	3분 통화 - 2페소	60원
	복사비	A4 1장 1.5페소	45원
	치약	100g 38~91페소	1,140~2,730 원
	칫솔	50~150페소	1,500원

	빗	45페소~99페소	1,350원
	면도기	Gillette Mach3 : 304페소	9,120원
		1회용 면도기: 15페소	450원
		여성용 면도기 250	7,500원
	면봉	21페소	630원
	필름	24판 114페소 / 36판 145페소	3,420원 4,350원
	사진 현상비	1장 5.50페소	165원
<b>필리핀 교통수단</b>		<b>필리핀</b>	<b>환율 (1페소=30원)</b>
	택시비	기본 30페소	900원
	지프니	6~8페소	180~240원
	국내선 항공 (편도요금)	1500페소~	45,000원~
	트라이 시클	10페소	300원
	오토바이	50~300페소	1,500~9,000원

음식		필리핀	환율 (1페소=30원)
	파스타	136페소	4,080원
	갈랑라이스 (볶음밥)	50페소	1,500원
	포크발리	160페소	4,800원
	파인애플밥	75페소	2,250원
	밥 한 공기	30페소	900원
책		필리핀	환율 (1페소=30원)
	원서 영사 전류	552페소	16,560원
	얇은 원서 소설책	700페소	21,000원~
	원서	1000페소	30,000원

## 필리핀 <기후>

필리핀의 기후는 1년 내내 기온이 높은 열대 기후이며 계절풍의 영향으로 계절은 우기와 건기로 나뉜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기후 차가 많이 난다.

**우기(6월~10월):** 많은 비가 내리지만 비는 순식간에 많은 양이 내렸다가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기에는 자주 태풍이 발생하므로 여행 시 주의해야 합니다.

**건기(11~5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기간으로 덥고 건조한 편. 비교적 기온이 낮은 편으로 1년 중 가장 생활하기 적당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기간 중 Baguio와 같은 고산지의 밤에는 한국과 가을과 같이 밤낮으로 쌀쌀합니다. 진정한 건기에 해당하는 3월부터 5월까지의 무척 덥고 건조하여 생활하기 불편합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나지만 보통 연평균 26도, 습도 77%라고 한다.

3~5월. 22~32도로 덥고 건조하다. 선글라스나 모자를 준비.

6~10월. 우기. 꼭 우비나 우산 등을 준비.

<<우리에게 해당사항>>

11~2월. 22~28도로 쾌적한 날씨.

Tip. 우리가 약 2주간 가는 민다나오 와와이 마을은 고지라서 추우니까 긴팔이나 얇은 가디건!

## 필리핀 <음식>

### ▶ 필리핀 음식의 특징

필리핀의 음식은 한 마디로 중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받은 동, 서양 음식문화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남아에서 한국인들이 음식을 먹기 힘든 이유는 음식에 사용하는 향료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한다. 하지만 필리핀의 음식은 다른 동남아 음식과는 다르게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다고 한다. 필리핀의 음식은 향신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담백한 음식과 짜고 달고 신 음식들이 많은데, 필리핀 고유의 음식보다 여러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가 겹쳐서 만들어진 퓨전요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들 고유의 토착음식이 있으며 조리법과 맛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공통적으로 필리핀 음식은 야채보다도 육류를 이용한 음식이 주를 이루며 그중 닭요리와 생선요리, 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식탁에 많이 오르는 음식은 닭고기! 밥과 닭고기가 거의 주식에 가깝다. 거기 에다 간식으로 바나나가 항상 따른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야채요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필리핀에도 다양한 야채요리가 있다. 그러나 일반 가정집에서 즐겨 요리하는 필리핀 음식은 대개 매우 단조롭고 기름지다고 할 수 있다.

### ▶ 필리핀 식문화

반찬의 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일식 일찬이며 부유한 집에 경우 반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부유한 가정의 경우 가정부가 음식을 나르는데 손님부터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 순서로 시중을 들며 그 다음 집주인의 자식들이 마지막 으로 음식을 받는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모두 함께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온 식구가 귀가할 때까지는 저녁식사를 미룬다. 손님이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손님이 밥을 같이 먹지 않고 손님이 먹고 난 뒤 남은 음식들이 밥을 먹는다고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포크와 스푼을 사용하며 시골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다. 실지로 보기엔 비위생적이긴 하지만 손을 사용하여 식사를 하면 입맛을 돋군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빈민가 등을 제외하고 일반 가정집에서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아침은 달걀 프라이와 빵 그리고 커피로, 점심은 햄버거나 스파게티 등의 패스트푸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물론 맥도날드도 있고 필리핀 자체상표인 '졸리비'라는 패스트 푸드점은 맛이나 체인점 수에서도 맥도날드를 능가하지. 어디를 가나 'JOLLIBEE'가 없

는 동네는 없다고 해.

▶ 필리핀 음식의 음식은 왜 다양하나요?

필리핀 음식은 말레이족의 음식에 기본을 두고 있다. 이에 중국, 스페인, 미국 등 필리핀을 찾아온 여러 이민족들은 필리핀의 정치, 문화는 물론 음식 문화에도 강한 영향을 미쳐 독특한 맛과 조리법을 탄생시켰다. (이 자료 조사하면서 느낀 점인데 막 여러 나라한테 이리체이고 저리체여서 불상하기도 하지만 여러 나라의 조리법을 배워 독특한 자신의 나라의 것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낌!! - 범진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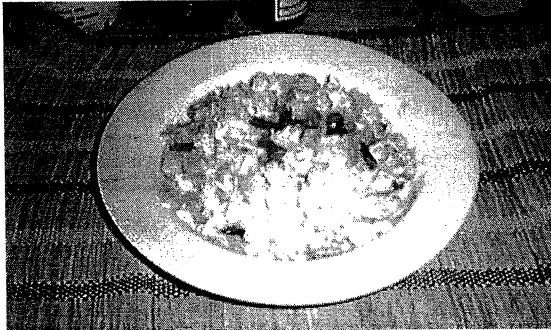
7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 해산물만큼 풍부한 음식재료도 없지. 거의 모든 식당마다 각기 다른 조리법을 이용한 자신들만의 해산물 요리를 선보이고 있을 정도인데, 해산물을 이용한 전통 요리들은 일찍이 보르네오 섬에서 건너온 초기 개척자들, 즉 말레이 족의 음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필리핀 요리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 되었어. 새우, 게, 굴, 생선, 가재 등을 이용한 기본적인 해산물 요리는 대부분 튀기거나 구워서 다양한 소스와 함께 먹어. 붉은 색의 라푸라푸는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즐겨먹는 생선이며, 다바오 지방의 이니호 나팡가 (구운 참치머리 요리)도 유명하지. 근데 먼저 필리핀에 다녀온 언니, 오빠들의 말을 들어보니 날이 너무 더워서 작은 식당이나 밖에서 그냥 파는 해산물들을 먹으면 심중팔구 배탈이 난다니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전통음식 중

스페인 영향을 받은 '아도보'라는 음식 그 중에 '치킨&포크 아도보'가 짱이래요!!!!  
중국 영향을 받은 '레첸' 맛있겠다!!!! 필리핀 가서 Most하게 많이 먹어볼 것만 같은.(best라고 해야 하나?) - 범진군 왈

▶ 필리핀 전통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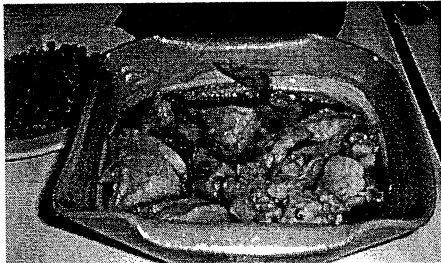
시낭개그 ( Sinangag )



필리핀 볶음밥의 대명사. 요리 재료는 마늘, 식용유, 소금, 후추, 간장, 고기(돼지고기,소고기, 닭고기 등), 스크램블한 계란, 새우, 양파, 파. 태국의 '카오팟'과 같으나 태국은 넣는 고기의 종류에 따라 음식의 이름이 바뀌거나 '카오팟 공(새우)', '카오팟 무(돼지고기)', '카오팟 느아(소고기)'-

필리핀은 태국처럼 많이 구분은 두지 않는 편이다.

치킨 앤 포크 아도보 ( Chicken and Pork Adobo )



돼지고기나 닭고기, 오징어를 끓인 스튜 요리로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로 이중 단연 으뜸인 것은 치킨&포크 아도보로 글자 그대로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재료로 한 요리인데 필리핀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이다. 외국인들이 뽑은 베스트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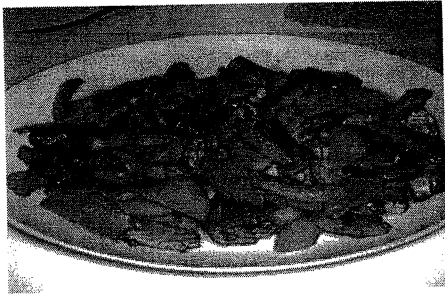
리피노 음식에도 매년 뽑힌다

빤싯 칸톤 ( Pancit Canton )



국수류. 빤싯 칸톤(굵은 국수)과 빤싯 귀사도(가는 국수)등 재료에 따른 다양한 종류 있다.

Guinisang Sayote ( 또는 chayotte)



동네음식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요리로 필리핀 전통요리라기보다는 퓨전 쪽에 가깝다.  
원래는 멕시코계나 화교인의 요리다.

암팔라야 오믈렛 ( Ampalaya Omele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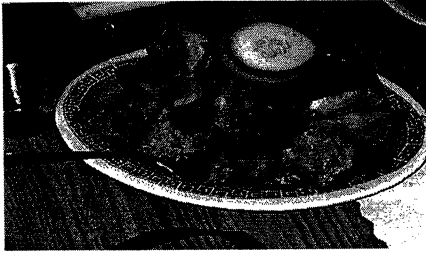
가장 보편적인 오믈렛으로 고소한 맛이 독특하다

닐라강 마니 ( Nilagang Man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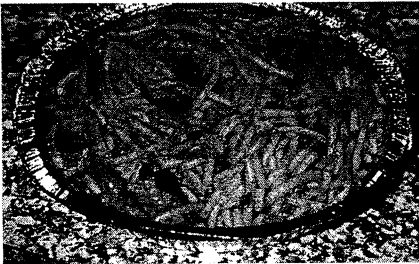
삶은 땅콩. 로하스 볼리바드나, 카비떼, sm, 에드사, 브렌디아, 타프 아비뉴 등 차가 막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심심풀이 땅콩인 셈이다. 맛은 한국의 땅콩과 같다.

레천 가왈리 ( Lechong Kawale )



통돼지 바베큐인 레천(Lechon)을 썰어 담은 요리. 생일이나 피에스타(마을축제)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로 서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요리중 하나다

빤싯 말라본 ( Pancit Malabon )



말라본 지방에서 만들어진 국수요리.

룸피아 (Lumpia)



얇은 밀전병 속에 고기와 야채를 채워 튀겨 먹는 음식으로 만두와 같은 맛이다. 새우, 닭고기, 돼지고기에 야채를 채운 스프링롤. 룸피아 상하이는 고기만 넣고 튀긴 작은 스프링롤이다. 길거리에서도 판다.

카레카레 (Kare-K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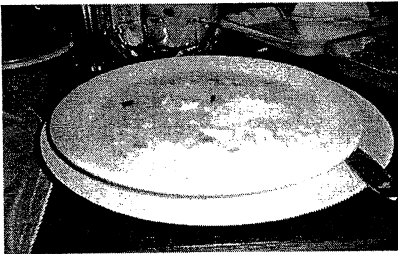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땅콩소스와 바나나, 깍지콩, 야채, 양파와 곁들여 먹는 요리. 한국에는 없는 음식이기에 그 맛도 독특하게 느껴진다. (광고는 많지만... 우웻!)

### 파파야 샐러드 ( Papaya Sala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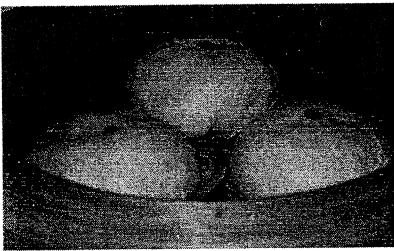
샐러드를 만드는 파파야는 잘익은 파파야가 아니라 아직 덜익은 녹색의 파파야를 재료로 한다. 즉흥적인 맛보다는 뒷맛이 고소한 게 특징이다.

### 아로스 칼도 ( Arroz Caldo )



필리핀의 서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요리로 한국의 '죽'에 해당하고 태국음식의 '카오펙'과 같다. 아침시간이면 동네의 모든 식당에서 아로스 칼도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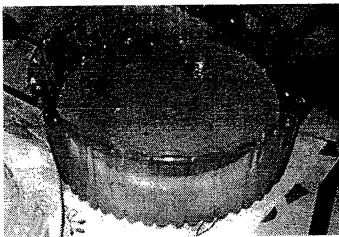
### 만 두 ( Siopao )



속은 돼지고기를 으갠 부드러운 고기를 대부분 쓰며 필리핀에 화교가 많은 탓에 자연스럽게 필리핀 음식으로 정착한 중국요리인 썸이다. 사회적으로는 흔히들 여성의 가슴을 빚대어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작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보편적인 찐빵보다 작고 만두쪽에 가깝다. 그러기에 만두는 시아파오(또는 소파오)라

하고 찐빵은 쇼마이라 한다.

### 레체 플란 ( Leche Flan )



필리핀에서 가장 보편적인 디저트 음식이다.

## 필리핀 <놀이문화>

### ▶ 투계

동남아시아 중에서 특히 필리핀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 재미있는 눈요기 거리로서 중, 하층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투계가 성행한데에는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1521년부터 시작된 스페인의 330여 년간의 지배시기 속에 받았던 압박과 설움을 이 투계에 반영 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일종의 도박의 개념으로 시종 주말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판돈 또한 매우 크다. 경기장은 한국의 씨름장과 흡사하며 원형구장 중앙으로 닭의 주인이 각자의 투계를 안고 입장하는데 이때 관중들은 닭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 한 후에 돈을 걸게 된다. 경기가 시작되면 두 마리의 닭 중에서 한 마리가 죽게 되거나 닭의 주인이 하얀 수건을 던지며 기권 의사를 밝혀야 끝이 나게 된다. 낮은 지능지수를 가진 닭은 상당한 전술을 구사하며 주인이 외치는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다. 경기시작 5분 후에 별다른 경과가 없을 경우 두발에 칼날을 달고 칼날을 달자마자 서로의 목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투계용 닭은 매일 각 종 비타민을 섭취하며 사람도 먹기 힘든 보양식을 먹는 듯 주인의 갖은 정성에 의해 키워지고 훈련되어지며 이런 닭은 누구에게나 재산 1호로 여겨진다.

### ▶ 카지노

주로 돈이 많은 상류층이 즐기는 필리핀 대표 놀이문화로서 내, 외국인이 쉽게 즐길 수 있으며 미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 비해 승률이 매우 높기로도 유명하다. 이탈리아어인 "작은 집 (casa)" 에 어원을 둔 카지노는 초기에 도박장의 이미지가 강한 반면 오늘날의 카지노는 관광에 각종오락을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종합휴양지로 변모하는 추세이다. 필리핀에 있는 수많은 카지노 장 역시 포근하고 평온한 분위기에 주력하고 라이브무대, 각종 쇼와 이벤트 등을 확장하고 있다.

### ▶ 축제

필리핀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은 축제와 함께 어우러진다. 일시적으로 축제를 이용한 상업적인 기업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번성을 하지만 일부 사람들, 즉 장사꾼, 놀이꾼, 미용사, 약장 사, 소매치기, 거지와 같은 사람들이 이 축제에서 저 축제로 옮겨 다닌다. 특히 정치인들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축제를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 타 지역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한다. 저명한 시민들은 축제기간을 통하여 존경을 받는다. 모든 것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기이다. 즉 집을 수리하여 깨끗이 하고 거리와 공장소가 새롭게 단장된다. 종교적인 각종 조각물들을 다시 칠하거나

새 옷을 갈아입힌다. 바로 축제가 민속 예술과 창조성의 돌파구가 된다. 사람들은 최고로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도시는 활기를 띈다. 축제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도시의 주요 인사에 의해 주의 깊게 논의되어 조직되고 재정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연습된 후 실시 된다. 미리 축제계획이 수립되고 책임이 할당된다. 개인이나 단체는 돈이나 서비스를 지원한다. 미인선발 대회를 위한 표 판매, 사회행사나 패션쇼의 입장요금으로 자금을 마련한다. 후원자들은 기부금을 내놓는데 이는 축제예산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특히 교회 행사 중 식사에서부터 교회장식과 여러 날의 집 개방과 아울러 식사대접에 이르기까지 도시 주요 인사들의 지지 없이는 축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 때때로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좀 더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하도록 후원한다. 그리고 손님을 음식을 더 많이 차린 집으로 안내하는 풍습은 나눔이 정신을 기리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다면 필리핀에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다. 국가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이며 두 달 전인 10월부터 집집마다 거리마다 화려한 장식들로 들뜨기 시작한다. 대개 12월 중순부터 휴가에 들어가며 기일인 12월 25일을 전후 하여 며칠 동안은 문을 연 상점들이 없을 정도로 국민들 또한 최대축제로 여긴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푸짐한 음식을 차려 주워 사람들은 초대해서 베푸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과 관계된 사람 모두와 선물을 교환한다. 수많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 \* 부활절

- 국민의 85%가 로마 가톨릭 신자인 것은 감안할 때 부활절 또한 중요한 의식이 아닐 수 없다. 부활절 당시 시대상황을 예수를 찌른 병사와 같이 분장한 사람들을 주도하여 재연된다. 부활절 전 40일간은 단식, 참회하는 의식이 행해지는데, 이를 사순절이라 한다.

#### \* 연말

- 크리스마스 기간에 쓰고 남은 돈으로 필리핀인들은 모두 폭죽을 산다. 이것은 중국의 영향으로 '자시'라 하는 밤 11시~새벽 1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폭죽을 터트리며 한 해의 액운을 모두 쫓아낸다는 의미에서 행해진다. 아름다운 폭죽의 불빛들이 하늘을 수놓는다.

#### ▶ 스포츠

필리핀을 대표하는 스포츠는 단연 농구이다.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국내프로리그가 있는 스포츠로서 아시아에선 한국, 중국, 다음으로 농구를 잘한다. 도로 옆 곳곳의 공터에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백화점등지에서 3:3 길거리 농구대회가 많이 행해진다. 농구장 둘레를 겹겹 이 둘러 쌀 만큼 많은 관중들이 있으며 매년, 매달, 참가선수들도 많아지고 있어 명실 공히 이 나라 최고 인기의 스포츠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포켓볼을 들 수 있는데 남자부 포켓볼 1위의 선수가 바로 이곳에 있을 만큼 포켓볼 또 한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허름한 구멍가게에도 다 있을 정도의 뛰어난 보급률을 자랑 한다. 이외에도 배구, 탁구 등이 필리핀인들에게는 인기 있는 놀이 문화로 그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 1946년 미국으로부터 해방된 뒤, 이 곳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의 개발이 미흡했기에 작은 공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오늘날 까지 이어진 것이다. 아직까지도 축구나 야구 같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들은 그 인기 에 있어서 여전히 기대 이하이다.

#### ▶ 노래

필리핀인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일을 하면서, 길을 걷다 가도 노래를 부를 정도로 노래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의 위안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 노래방이라 불리는 곳은 규정상 새벽 2시면 문을 닫아야 하지만 마을 곳곳에 한 대 한 대 들어서 있는 작은 구멍가게 안의 노래방 기계는 새벽을 지나 아침이 돌아 올 때까지 계속 울려진다. 물론 소음 방지벽 이라 던지 소리를 작게 낸다 던지 하는 것은 없다. 노래, 음악만큼은 소리가 아무리 커도 문제되지 않는다. 대중 교통 수단인 지프니가 터질듯 한 음악을 틀고 다니고 큰 길 바로 옆에 뺑 뚛린 곳에서 노래방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 필리핀 <음악>

### 1. 전통음악

필리핀의 음악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토착민(대대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백성)의 소리가 혼합된 형태이다. 필리핀 음악은 대부분 377년 동안 계속 된 스페인의 식민 유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필리핀은 거대한 군도 국가로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필리핀 음악은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 종류를 모두 포함하는 악기들의 조합으로 연주된다. 이 악기들은 보통 구리, 나무, 대나무 등으로 만들어졌다.

### 2. 대중음악

필리핀 대중음악을 이야기 할 때 사람들은 흔히 오피엠 (OPM original pilipino music) 또는 오리지널 피노이 (pinoy) 뮤직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된다.

OPM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 Sharon Cuneta(샤론쿠네타), Regine Velasquez(레진 벨라스케즈) 등 메이저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발라드 풍의 음악을 이야기 한다.

사실 이제 OPM 이란 용어는 이들만의 특징적인 장르를 벗어나 필리핀에서 만들어졌거나 필리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불리어지는 모든 노래를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가사도 필리피노, 영어 따갈리쉬(필리피노어 + 영어) 등 여러 언어로 쓰여지고 있으며 그 장르 또한 마찬가지로 재즈, 힙합, R&B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 3. 필리핀 연예인

#### Sharon Cuneta(샤론쿠네타)

샤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필리핀 사람은 간첩이라 할 만큼 필리핀에서 유명한 배우이다. 지금은 영화배우, 가수, 상품선전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 Regine Velasquez(레진 벨라스케즈)

레진은 아시아의 노래하는 요정이라 불린다. 레진은 필리핀은 물론, 영어음반을 통해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톱스타이다. 한국에서는 장학우와 듀엣으로 부른 'In Love With You'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필리핀판 삼순이에서 삼순이의 역을 연기하기도 했다.

#### Ogie Alcasid (오기 알카시드)

필리핀에서 유명한 가수이다. 감미로운 발라드 가수이고, 많은 히트곡을 냈다고 한다. 2008년에 레진과 열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 4. 필리핀 악기

##### - 전통악기

**통알리** : 통알리는 코로 연주하는 악기이고, 우리나라의 대금 소리와 비슷하다.

**타궁구앙** : 작은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타악기다. 이 악기는 2명에서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 - 자주 쓰는 악기

**젬베** - Djembe(젬베)는 타악기 분류로는 멤브라폰에 속한다. 멤브라폰이란 공명통에 팽팽히 조여진 막이나 가죽을 떨리게 하여 소리 내는 악기들을 뜻한다. 몸체는 나무로 만들며, 모래시계유리 모양을 하고 있고, 윗부분에 동물의 가죽을 씌워서 만들었다.

젬베는 필리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나 흥을 낼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기타** - 기타는 필리핀 사람들 대부분이 기타를 가지고 있고, 기타를 배운 적은 없지만, 농사를 지을 때나, 일을 할 때 항상 곁에 있어서 인치 기타 실력이 수준급이라고 한다.

##### -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 적힌 이야기들은 다녀온 사람들에게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필리핀의 음악은 형식적인 음악이 아니라, 개인의 느낌인 것 같다. 음악을 완전히 개인의 느낌에 맡기고 표현 할 수 있는...^^

개인의 느낌을 살리면서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과 마음과 눈빛으로 소통하고 그 사람들의 음악까지도 들으면서 같이 만들어 내는 모습이 멋있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른다는 것에 대해 부담이 없는 것 같다.

필리핀에 가면 노래방 기계가 곳곳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주위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부르고 싶은 만큼 부르다가 나와서 갈 길 간다.

필리핀 사람들은 주로 타악기나 기타를 연주하고 실력도 수준급이다.

클래식이나 발라드 보다는 함께 떠들고 즐기고 춤출 수 있는 곡들을 자주 즐겨 듣는다고 한다.

## 필리핀 <교통>

필리핀 교통수단.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정보는 최근의 1~2년 전 기준이다.

### ▶ 지프니 (Jeepney)

필리핀의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지프니. 필리핀에서 직접 제조, 생산하는 자동차이다.

버스와 마찬가지로 노선이 없으며 유리창에 있는 목적지를 확인하고 타면 되고 승차는 일정

지역의 지프니 타는 곳이 있으니 기다렸다가 목적지를 확인하고 승차하면 된다.

내릴 때에는 지프니 천장을 두드리며 “stop” 이라고 말하면 된다.

차비는 타고 목적지를 말하면 요금을 알려주니 지급하면 된다.

우리나라 버스의 약 6~10구간 정도를 운행한다.

안전의 위험이 있으며(빨리 달림) 외국인에게는 소매치기를 주의해야 할 장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매연을 많이 내뿜으며 안으로 매연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다.



### ▶ 트라이 시클(Tricycle)

트라이시클은 필리핀 사람들이 지프니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것 같다.

보통 오토바이 옆에 사이드카를 단 것인데, 우리나라에선 간혹 기동경찰의 오토바이 옆에 한 사람이 탈수 있는 사이드카를 볼 수 있는데, 이곳의 트라이시클은 사이드카에 두 명이 겨우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다.



우리나라 버스로 예를 들면 1~2구간을 운행하고 일정한 정류장이 있지만 길가다가 보이면 세워서 목적지를 얘기하고 도중승차도 가능하다.

또 지프니와 같이 정해진 노선은 없지만 다닐 수 있는 구역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만 다니는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프니가 다니지 않는 골목골목을 트라이시클이 다닌다.

요금은 크게 노멀과 스페셜이 있는데 노멀은 정류장에서 만원(4~5명)이 차기를 기다렸다가 3~4페소를 지불하는 형식이고, 스페셜은 기다릴 필요 없이 만원의 요금을 지불하고 간다.

하차 방법은 stop 이라고 외치고 요금을 지불하면 되는데 후불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격을 잘 흥정해야 한다.

### ▶ 칼레사(Calesa)

칼레사는 차이나타운 비간(Vigan)과 시부(Cebu)에서 이용되었다.

시부에서는 이를 타르타닐라(tartanila)라고 불렀다. 마닐라에서의 요금은 대개 10 페소에서 시작한다.

물론 관광객은 바가지를 쓰기 일쑤이니, 모든 것을 흥정하고 난 후에 타야 한다. 예를 들면, 요금이 사람 수에 따라 정해지는지 혹은 칼레사를 한 번 사용하는 수에 따라 매겨지는지 결정해야 한다.

#### ▶ 버스

한국과 같이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쓰인다. 하지만 대로를 위주로 운행하며 먼 거리 이동 수단으로 많이 쓰이며 한국과 같은 깨끗한 버스 환경은 제공하지 않고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없는 버스가 많다. 또한 외국에서 중고(거의 폐차 수준)를 수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 오염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외국에서 거의 폐차수준인 차를 수입해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위생이나 기타 시설은 엉망. 주로 마닐라, 케손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는 차문에서 가격을 지급하지만 필리핀은 승차해서 앉아있으면 승무원이 돈을 걷으러 온다는 점이다. 그리고 차비는 이용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차비문의는 승무원이 왔을 때 목적지를 말해주고 지급하면 된다.

버스 번호나 노선은 없고 버스 유리창 앞에 목적지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타면 된다.

그리고 좌석, 일반버스로 크게 구분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필리핀은 크게 에어컨 버스, no에어컨 버스로 나누어진다. 보통 에어컨버스는 유리창에 에어컨이라고 적혀져 있다.

#### ▶ 택시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가격은 30~40페소이고 중고차를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승차감은 거의 바닥이라고 한다.

#### ▶ 지하철

LRT, MRT 라고 하며 특별한 의미는 없고 1,2,3 호선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 메트로 마닐라에만 있다.

## 필리핀 <언어> / 간단 따갈로그

\*따갈로그는 영어와 함께 필리핀의 국민언어로 쓰인다

Mabuhay(마부하이) 안녕하세요  
**Kumusta ka(꾸무스따까) 안녕하세요**  
paalam(빠알람) 안녕히 계세요  
**salamat po(살라맛 뽀) 감사합니다**  
magandang umaga(마간당 우마가)  
아침인사  
magandang hapon(마간당 하뽀)  
오후인사  
magandang gabi (마간당 가비)  
저녁인사

ako ay si ~ (아코 아이 지~)

내 이름은 ~입니다.

mahal kita(마할 끼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니다

**Oo (오오) 예**  
**hindy (힌디) 아니오**

walang anuman  
(왈랑 아누만) 천만에요  
mabuti naman  
(마부티 나만) 잘 지냅니다  
**anong bbangala mo?**  
**(아농 뽕알라 모) 이름이 뭐예요?**  
**ilang taon ka na?**  
**(일랑 따온 까 나?) 나이가 몇이예요?**  
anong trbaho mo?  
(아농 트라바로 모?)  
직업은 무엇입니까?

**ano ito? (아노 이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talaga? (달라가?) 정말(입니까)?  
anong oras na? (아농 오라스 나?)  
몇 시예요?

**mura 싸다**

**mahal 비싸다**

물건 값 흥정할 때 필수 ㅋㅋ

Nasaan ba C.R (나싼 바 씨.알)

화장실이 어디예요? <중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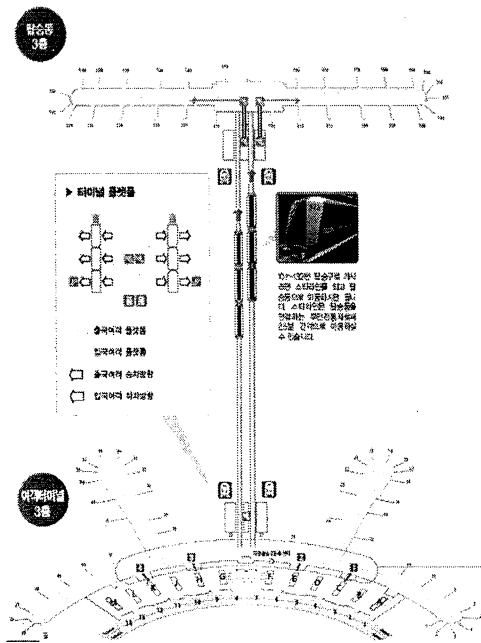
\*C.R 이 화장실이다.

**인칭대명사 및 수식어**

ako (아코) 나  
ikaw 당신, 너  
siya (시야) 그/그녀  
sila (실라) 그들

ano 무엇  
bakit 왜  
sino 누구  
allin 어느 것  
paano 어떻게  
saan 어디에  
kaillan 언제

## 출국절차



### ▶ 출국절차

**탑승수속 및 수하물 박송**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서 좌석을 확정 받고 수하물을 박송합니다.



### 1 4 번 출국장으로 이동

**세관신고**  
고가물품 휴대시에는 출국장 입구 내의 세관 신고대에서 신고합니다.



**보안검색**  
항공기 내 반입제한 물품 등의 휴대여부를 점검받습니다.



**출국심사**  
실시대에서 여권, 탑승권을 제시 하고 출국심사를 받습니다.



**탑승구 101~132번** : 탑승구 101~132번으로 이동하 시려면 티켓을 확인하신 후 스타리안을 타고 탑승동 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탑승구 1~50번** : 여객터미널에서 항공기에 탑승하 시면 됩니다.

**탑승**  
항공기 출발 40분 전까지 지정 탑승구로 이동하여 탑승합니다.



## 입국절차

간단하게 입국 절차도 알려주자면, 도착→검역(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입국심사(차 례로 여권을 제출하고 입국심사를 함)→수하물 찾기(안내판 확인 후 해당번호 수취 대에서 수하물을 찾음)→세관검사(세관물품이 있을 경우 검사를 받음)→입국장

- 우리는 **국내인** 이기 때문에 입국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으니 **길을 잃거나 짐을 못 찾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 인천공항 출국

### 1. 발권 및 수화물

1) 비행기에 들고 들어갈 가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행기 수화물로 붙일 가방의 개수를 말해주시면 안내원이 가방의 무게를 달고 하나하나 태그를 붙여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태그를 여권에 붙여 줄 것입니다. 이 확인 태그는 나중에 필리핀 공항에 가서 짐을 찾아 나올 때 가방의 태그표와 비교검사하게 됩니다.

#### ▶참고

- 가방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1인당 20kg까지 수화물을 붙일 수 있습니다.

(보통 23~24kg 정도도 괜찮습니다.)

- 기내에 들고 들어갈 가방은 10KG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 ▶주의 사항

타인이 수하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짐 부실에 대비 가방에 소유자 이름, 주수지, 목적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붙여두십시오.

### 2. 출국장 검사

1) 여권과 비행기표를 가지고 국제선 출국장으로 들어가시면 들고 온 가방을 검사합니다.

(잘 모르면 설명을 듣거나 앞사람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2) 출국 심사장에서 여권, 비행기표를 보여주면 출국심사를 받습니다.

3) 출국 심사장을 통과한 후 면세점이나 여러 곳을 구경하시다가 비행기 표에 있는 GATE에 가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마 30분전에 비행기로 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3. 비행기 탑승 및 비행

1) 비행기 탑승 시 비행기 표를 보여주시고 해당 좌석에 앉으시면 됩니다.

2) 비행 중에 우선 차와 식사가 나옵니다.

3) 나중에 필리핀 입국 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입국신고서는 샘플을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고 다른 한 장은 읽어보시고

모두 NO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용이나 물품, 질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샘플 내용을 기억해 두면 편리합니다.)

#### 4. 필리핀 도착 및 입국심사

1) 필리핀 항공에 도착을 하시면 앞 사람을 따라 입국 심사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때 여권과 비행기에서 받아 작성한 입국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입국신고가 끝나면 나와서 짐을 찾으시면 됩니다.

4) 짐을 모두 찾아 다면 비행기에서 받은 다른 서류하나를 제출하시고 공항을 나오시면 됩니다. 공항 나올 때 수화물 태그와 가방을 비교합니다.

### 필리핀 공항 출국(한국으로 귀국 시)

#### 1. 발권 및 수화물

1) 필리핀 공항에 여권을 보여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2) 비행기에 들고 들어갈 가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행기 수화물로 붙입니다.

#### 2. 출국장 검사

1) 이제 여권과 비행기표를 가지고 출국심사장에 갑니다.

2) 해당 출국 게이트에서 기다리다가 탑승하시면 됩니다.

#### 3. 귀국

한국인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모든 비행기내에서 액체 류, 젤류는 반입이 안 됩니다. 따라서 수화물로 붙여야 합니다.

# 입국심사카드 작성하기

Republic of the Philippines BUREAU OF IMMIGRATION		DISEMBARKATION CARD (For Arriving Passengers)	
이름 영어로			
SURNAME / FAMILY NAME Hong		FIRST NAME / MIDDLE NAME Gil Dong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MALE 남자	BIRTHDAY (MM/DD/YY) 생일 달 일 월	COUNTRY OF BIRTH Korea 국적	
2. <input type="checkbox"/> FEMALE 여자		OCCUPATION 직업 Businessman	
CITIZENSHIP Seoul		OCCUPATION 직업 Businessman	
ADDRESS ABROAD (NO. STREET, TOWN/CITY, STATE/COUNTRY, ZIP CODE) 1370 Gonghang-dong, Gangseo-ku, Seoul			
ADDRESS IN THE PHILIPPINES (NO. STREET, TOWN/CITY, PROVINCE) Hyatte Regency Hotel 한국거주지			
PASSPORT NUMBER 여권번호	PLACE OF ISSUE 발행지	DATE OF ISSUE (MM/DD/YY) 발행일 달 일 월	
MAIN PURPOSE OF TRAVEL (CHECK APPROPRIATE BOX)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HOLIDAY / PLEASURE		3. <input type="checkbox"/> CONVENTION	
2. <input type="checkbox"/> VISIT FRIENDS / RELATIVES		4. <input type="checkbox"/> BUSINESS	
5. <input type="checkbox"/> OTHERS (SPECIFY)			
NUMBER OF VISITS TO THE PHILIPPINES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or more		TRAVELING ON PACKAGE TOUR?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2. <input type="checkbox"/> NO	
SIGNATURE OF PASSENGER 나의 서명		AIRPORT OF ORIGIN 출발 비행기 번호 Incheon	
FOR PHILIPPINE OVERSEAS CONTRACT WORKERS / BALUKHA			
OCW I.D. NO.	REASONS FOR RETURNING TO RP	CONTRACT TERMINATED	
DATE OF LAST DEPARTURE (MM/DD/YY)	4. <input type="checkbox"/> OTHERS (SPECIFY)	VACATION / ON LEAVE	
HEALTH			
WARNING: <input checked="" type="checkbox"/> DEATH TO DRUG TRAFFICKERS UNDER PHILIPPINE LAW (RA 7653)			

한국 거주지 란에

92-3 Sungo - ri Pucksan - myeon  
Jechon - si,

현지에서 생활 할 곳 란에

Bong ga Road Bong-ao Valancia  
Oriental Negros, the philippines.

SURNAME / FAMILY NAME 홍		FIRST NAME 길동	
3. <input type="checkbox"/> MALE 남자	BIRTHDAY (MM/DD/YY) 생일 달 일 월	OCCUPATION / PROFESSION 직업	
4. <input type="checkbox"/> FEMALE 여자		OCCUPATION 직업 직업	
CITIZENSHIP 사는 나라		OCCUPATION 직업 직업	
PASSPORT NO. 여권번호		DATE AND PLACE OF ISSUE 여권 발급일	
ADDRESS ABROAD 필리핀 주소		ADDRESS IN THE PHILIPPINES 간디 주소	
비행기 번호		AIRPORT OF ORIGIN 인천	
REASONS FOR RETURNING TO RP			
1. <input type="checkbox"/> Balikbayan		4. <input type="checkbox"/> Business	
2. <input type="checkbox"/> Family Visit		5. <input type="checkbox"/> Tourism	
3. <input type="checkbox"/> Overseas Filipino Worker		6. <input checked="" type="checkbox"/> Other	
NO. OF ACCOMPANYING MEMBERS OF THE FAMILY: Spouse, Children, Plus, Household, etc.			
GENERAL DECLARATION: (Please read important instructions of the board)			
1. Are you bringing in free samples, plants, fruits and/or their products and by-products? (If yes, please see a Customs Officer before proceeding to the Quarantine Office)			
2. Are you carrying legal foreign Philippine notes and coins or checks, money order and air air bills of exchange drawn in pesos against banks operating in the Philippines in excess of P10,000.00?			
If yes, do you have the required Bangko Sentral ng Pilipinas authority to carry the same?			
3. Are you carrying foreign currency or other foreign monetary instruments (including travelers checks in excess of US\$10,000.00 or its equivalent) if you are the sole depositor of the foreign currency instrument from at the Customs Desk at Arrival and Departure areas.			
4. Are you bringing in prohibited items (narcotics, explosives and prohibited drugs, restricted chemicals) or regulated items (VCRs, DVDs, communication devices, telecameras)?			
5. Are you bringing in (a) medicines, (b) electronic goods, and (c) commercial merchandise and/or samples purchased or acquired abroad?			
ALL PERSONS AND AIRCRAFTS ARE SUBJECT TO SEARCH AT ANY TIME (Section 22 to and 22-22 Rule & Customs Code of the Philippines as amended)			
SIGNATURE OF PASSENGER 사인하는 곳		SIGNATURE OF CUSTOMS OFFICER 필리핀 세관서 관공인	
FOR CUSTOMS USE ONLY			

## 기초영어

### ▶ 입국 심사 때 필요한 기초 영어

may I see your passport please?

여권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얼마나 머물 예정입니까?

I will stay for 58 days.

58일 동안 머물 겁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i'm here for sightseeing,

관광 때문입니다.

where care you (going to/will you)

stay?

어디서 묵으실 건가요?

### ▶ 자기소개 하기

Hello/Hi my name is 자기 이름.

I'm 자기 이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입니다.

-How old are you?

몇 살이세요?

I'm 17(year old). - 만으로 하면 15

저는 17살입니다.

- Which grade are you in?

몇 학년입니까?

I'm in the first grade of the high school.

저는 고1입니다.

- Were you from?

어디서 왔습니까?

I'm from South Korea. / Soul in

Korea.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 What do you like to do?

뭐 하는 것을 좋아하니?

I like to ~ / ~ ing

(ex) I like to play football.

I like playing football.

제가 좋아하는 것은 ~입니다.

### ▶ 쇼핑

Can I buy this, Please?

이거 주세요.

I'd like red color Large of this one?

이거 빨간색 좀 주세요.

How much is it?

얼마 입니까?

Can you make it a little cheaper?

조금 싸게 해주시겠습니까?

Can you come down a little?

조금 깎아 주시겠습니까?

Could you show me less expensive ones?

좀 더 싼 것을 보여주세요.

Let's just check it out.

그냥 보기만 하죠.

I'll look around at a few more places and then decide.

다른데 더 둘러보고 결정할게요.

Is the price firm?

가격 조정이 안 됩니까?

Could you gift-wrap that for me, please?

포장 좀 해 주시겠어요?  
Do you have this in a bigger size?  
더 큰 사이즈 없나요?

▶ 우체국

Excuse me.  
안녕하세요.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소포 좀 보내려 하는데요.  
Would you weigh it on the scales,  
Please?  
제울 위에 올려놓으시겠어요?  
Yes, here.  
네. 올려놓았습니다.  
It's 400g. 5000 won.  
400g입니다. 5천원 되겠습니다.  
Here you go.  
네. 여기 있습니다.  
Let me check up the address. to  
South Korea. right?  
주소를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맞습  
니까?  
It'll be there 3days after.  
3일후에 도착하겠습니다.  
Thank you. good bye.  
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길 묻기

Excuse me, Where's ~?  
~가 어디죠?  
ex) Excuse me, Where's biggest  
shopping mall around here ~?

▶ 부탁하기

Would you please ~?  
~ 좀 해주시겠습니까?(공손한 부탁)  
Can you ~, Please?  
~ 좀 해줄래요?(일상적인 부탁)

▶ 그 외 필요한 영어

환전할 때

What's the of exchange?  
환율이 어떻게 되요?

식당에서

May I have the menu, Please?  
메뉴 좀 주실 수 있을까요?  
Please let me have the bill.  
계산서를 주세요.

관광 할 때

how much is the admission fair?  
입장료가 얼마예요?  
Is it permitted to take pictures?  
사진 찍어도 되요?

## ▶알아가기

### 필리핀에서 주의해야 할 병들

#### 뎅기열

##### ▶정의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질환이다. 뎅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전파된다. 이 모기는 아시아, 남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지방과 아열대지방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병이지만, 최근에는 유행지역에 다녀온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매년 30여 명씩 보고되고 있다. 뎅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기는 집 주위에 서식하는 모기이며, 보통 비가 고인 폐 타이어나 물웅덩이에 서식하고, 주로 낮에 활동한다.

##### ▶원인

플라비 바이러스(Flavivirus)속에 속하는 뎅기 바이러스(dengue virus)가 병을 일으킨다. 뎅기 바이러스에는 1형, 2형, 3형, 4형의 네 종류가 있다.

##### ▶증상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서 발열은 3~5일간 계속되고, 심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식욕부진이 생긴다. 초기에 때로 신체 전반에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 열이 떨어지면서 온 몸에 피부 발진이 1~5일간 계속되는데, 초기에는 얼굴, 목 및 가슴 부위에 좁쌀 모양의 발진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다가 3~4일째에 가슴과 몸통에서 시작하여 팔다리 와 얼굴로 퍼지게 된다. 전신의 림프절이 커지지만 간이나 비장은 축진되지 않는다. 코피나 잇몸 출혈 등의 경미한 출혈이 질병 경과 중에 나타난다. 성인의 경우 혈변을 보거나 월경과다, 목 부위의 림프절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뎅기열의 심한 형태로 뎅기 출혈열이나 뎅기 쇼크 증후군(dengue hemorrhagic fever)이 있는데, 이 경우 환자는 열이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매우 심한 쇠약감이나 불안증세가 생기고, 식은땀이 나며, 입 주위가 파랗게 되기도 한다. 가슴의 늑막에 물이 차고,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생겨서 배가 불러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뎅기쇼크 증후군이 계속되면 장에서 출혈이 생겨 혈변이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병의 경과 및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아 사망할 확률이 40~50%에 달하지만, 적극적인 중환자 치료를 받으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일부에서는 뇌염 증상이 동반된다.

##### ▶치료

뎅기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특이적인 치료는 없으나, 병의 경과 중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심할 수 있으므로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 혈소판 감소가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몸에서 출혈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덴기 출혈열은 몸에서의 출혈 현상뿐만 아니라 혈압이 떨어지고 다른 장기들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생겨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중환자 치료가 필요하다.

## **신종인플루엔자**

### **▶ 정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전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기존의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파방법과 유사하다. 계절인플루엔자는 비말감염을 통해 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된다. (예를 들어,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가까운 거리에 전파되는 비말감염의 경우, 비말은 공기 중에 퍼지지 않고 가까운 거리(2m이내, 6 feet)로만 이동한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전파 데이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구감염, 결막염 혹은 위장감염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와 가까운 접촉자 사이의 전파가 일반적이다. 잠복기는 확인 되지 않았으나 1~7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 **▶ 증상**

일반적 계절인플루엔자 증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발열(37.8℃),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오심, 무력감, 식욕부진, 설사와 구토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 **▶ 경과/합병증**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합병증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불충분하지만, 예전 돼지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환자를 보면 가벼운 호흡기질환에서 하기도증상, 탈수 혹은 폐렴, 급성호흡부전까지 증상을 보였으며 종종 사망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 **▶ 치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하면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상품명 타미플루)와 자나미비르(Zanamivir, 상품명 릴렌자)가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치료제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 **▶ 예방**

-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화장지를 버린 후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우리들의 생활규칙 Best 10

1. 우리가 지내는 곳의 규칙을 지킨다.
2. 식사시간을 꼭 지킨다.
3. 담배, 술은 걸리는 즉시 집으로 돌아간다.
4. 노출은 심하지 않게 한다.
5. 전자제품은 이동시 사용하지 않는다.(도난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모로 안 좋다)
6. 일요일은 자유 외출이 가능하다.
7. 약속시간은 무조건 지킨다.
8. 밤에는 외출금지(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 또한)
9. 언어순환, 욕하지 말자. 외국에서까지 한국말을 더럽히지 말자.
10. 파트너를 챙기자

파트너♥지수 우석 / 헤민 헤린 / 하늘 현준 / 도연 기봉 / 민욱 현지 / 한길 인하

## 꼭 지켜야 할 것 Tip

1. 밤에 밖에 혼자 나가지 말기
2. 필리핀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지 말기
3. 작은 물건 하나에도 너무 관심을 갖지 말자.
4. 일상적으로 상용하는 OK사인을 하지 말자.(필리핀은 OK사인 의미가돈을 의미한다.)
5. 필리핀사람을 부를 때 검지로 부르지 말자.
6. 어떤 사람이든 stupid라고 부르지 말자(스페인 사람들이 저렇게 불렀기 때문에 저주만큼 나쁜 말이다.)
7. 필리핀 사람에게는 적어도 3번을 권유하자.
8. 초대된 집에서 주인에게 말도 없이 나가거나 떠나지 말자.
9. 음식을 권유 받았을 때 내키지 않아도 조금은 맛보자.
10. 공식적인 자리에선 샌들을 신지 말자.
11. 선물은 준 사람을 허락을 받지 않고서 남들 앞에서 열어보지 말자.
12. 병문안을 갈 때 꽃보다 회복을 기원하는 카드나 음식을 가져가자.
13.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자.
14.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지적하지 말자.
15. yes를 yeah라고 대답하거나 no를 nope로 대답하지 말자(못 배운 무식한 놈으로 오해 함)
16. 필리핀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방문 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을 가져가자.
17. 웃는 것은 우정과 환영의 표시이다.
18. 필리핀 사람에게는 시간 지키는 것을 강요하지 말자(약속시간보다 15~30분 이상 늦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19. 식사시간에 코를 풀지 말자.
20. 음식을 입에 가득 물고 말하지 말자.
21. 필리핀사람들이 식사 후 트림하는 것을 개의치 말자(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주님에게 감사하다는 표시이다.)

## ▶ 경험자들의 조언

### ▶ 03학번이 전하는 필리핀 체험 학습 가이드

1) 준비물 : 전자사전, 옷(긴팔 긴 바지-민다나오 와와이 마을이 춥다) 코드 변환기 (220v인데 돼지코 말고), 시러스 카드(현금카드 같은 것), 지퍼 백(젖은 옷 넣고 등등) 고추장, 스노클링 장비 권장, 물놀이 복장(물안경 필수)  
전체준비물 : 한복, 단체선물, 공연 준비물(소품, 음악CD, 음향기기)

### 2) 가기 전 준비해야 할 것

1. 방문할 단체에 대한 사전지식 공부
2. 간단하게 생활 영어회화, 따갈로그 회화 공부
3. 필리핀에 대한 기초 상식 공부
4. 자료집 만들기
5. 공연준비
6. 여권 준비
7. 수영 배우기 (죽기 싫으면)
8. 모기약, 바퀴벌레 퇴치약(신기패) 필수
9. 생활 수칙 구체적으로 확실히 정하기
10. 마닐라 공항 이용료(500페소) 준비 - 공항 내에서의 식비
11. 화물로 붙이는 가방에 귀중품 넣지 않기
12. 기내에 액체용품 들고 타지 않기
13. 영상 촬영을 위한 캠코더, 테이프 충분히 준비
14.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짐 최대한 줄이기
15. 환전 할 때는 페소보다 달러가 유리함
16. 읽을 책 몇 권 가져가기
17. 3개월 동안 미용실 치과 등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가기 전 준비하고 가기

### 3) 마닐라

1.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기( 필리핀은 총기소지 가능)
2. 땀기열 모기 조심(밤 6시 이후 무릎 아래 조심-긴 옷 필요)
3. 필리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필리핀 사람들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가 극단 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4. NGO단체 배려하기(에어컨 사용하지 않기)
5.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사전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
6. 단체 방문 후 자세한 기록 필수

7. 힘들어도 영어로 말하도록 노력하기
8. 역할 분담 시 자료수집 역할 포함하기
9. 영상 촬영 절대 필요
10. 동전 지갑과 잔돈 필요
11. 택시 이용 시 미터기 확인
- 4) 다르마리냐스

**1. SM 자제 필요 (민다나오에서도 살 것이 아주 많음)**

**2. 용돈 관리(SM가는 길에 귀중품 조심)**

3. 여행지 사전에 알아보고 가기

**4. 바닷가 안전사고 주의**

5. 필리핀 가기 전 영어공부는 필수, 영어를 해야 밥을 먹는다.
6. 전기 아껴 쓰기(에어컨 많이 사용 할 경우 전기세, 냉방병 조심)
7. 태풍에 대비해서 물 아껴 쓰고, 실리콘 가져가기
8. 신기패 필요
9.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기

5) 민다나오

**1. 마닐라에 비해 추울 수 있으니 긴 옷 준비(특히 와와이 마을)**

**2. 기념품 살만한 것이 많으니 용돈을 아껴 놓는 것이 좋음**

3.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4. 과일을 한국으로 가져오고 싶은 경우, 씨와 껍질을 발라낸 후 가져와야 함
5. 멋있는 곳이 많으니 사진 많이 찍기
6. 캠프 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영어공부 필요)
7. 우리나라 전통의상 준비
8.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기 위한 공연 준비 많이, 선물도 많이 준비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들**

-필리핀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옷들도 정말 많다고 한다. 가장 필수품으로 사올 것이 100페소짜리 편안한 바지이다. 단 필리핀 사람체형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입기에는 조금 부담될 정도로 작다.

여러 쇼핑몰에서 맛있는 과자를 섭취한 다음에는 꼭 이빨을 닦자. 필리핀에서 보다 나중에 한국 치과에서 돈이 더 많이 깨지는 수가 있다.

길거리 쇼핑몰에서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먹을거리가 아닐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음식은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먹고 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쓰마에는 먹을 것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 간단한 쇼핑 tip

-다쓰마에서 돈을 많이 쓰지마라 특히 sm몰!

### ▶ 04학번이 전하는 필리핀 체험 학습 가이드

#### 꼭 먹어야 할 것들

Red Ribbon(케이크 전문점)의 초코롤, 각종과자, **망고**, 생과일 셰이크, **두론**, 카오테큐(트리하우스의 로사엄마가 해주시는 것) 카마테 큐, **바나나 큐**, 판싯 칸톤(엑스트라 스파이시), 시니강, 렌첸, 레드홀스, 산미겔, 나쵸, 외플(와플타임), **브라우니**, **마리아피자(네그로스)**, Red Ribbom(케이크 전문점)의 까르보나라. **발룻**, 각 지방마다 다른 바나나튀김, **부코 파이**, 구아바 파이, **과일 Sxoopery의 우베 아이스크림**, 할로할 감자튀김 현지음식, 초코렛 이상해 보여도 가리지 말고 다 먹어보자.

#### 꼭 가봐야 할 곳들

SM몰- 우리와는 다른 쇼핑몰을 체험합니다. 민도르의 기념품 판매점, 스노쿨링, 온천, 바다

#### 그 외 진심어린 한마디들

- 많이 먹고 와, 근데 많이 먹고 와도 먹고 싶어진다, 남는 건 먹는 게 반이더라 품
- 돈을 두둑하게 500페소 정도씩 갖고 다니고, 강도가 돈 달라 그러면 그냥 주고, 쇼핑 간단히 하고,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로만 사보아요, 쌤 몰래 많은 것들 해보기
- 외우면 좋아! kumusta po(안녕하세요) ako ay si wendy(저는 웬디 입니다.)
- 건장한 남성분들은 게이를 조심하며 여성분들에게는 가끔 헌팅이 오니 조심, 물가가 싸다고 많이 사지 말자 어느 순간 지갑이 가벼워진다. 환전하러 달러를 갖고 가는데 페소와 달러를 구분해 놓는다. 가끔 20페소를 20달러로 내는 경우도.. 필리핀 과자는 우리나라보다 유해물질이 많으니 많이 먹지 말자.
- 필리핀은 덥지만 와와이 마을 같은 곳은 높은 지대라서 밤에는 정말 추워. 그러니 따뜻한 옷 한 벌이라도 가져가면 좋을 꺼야. 그리고 집에서 남녀 같이 살 때는 같이 영화도 보고 과자 먹고 바나나 코코넛 파인애플 등등 같이 사먹고, 암튼 잘 다녀오고 모기 꼭 조심해.
- 밤길 조심. 길거리 애들한테 돈 주지마. 어차피 부모들이 다 뺏어 가거든, 금 약세 사리 가져가지만. 그냥 후다닥 뜯어간다 귀걸이든 뭐든. SM에서 옷 영간하면 사지 말어, 솔직히 후져, 바다에서 즐 신나게 놀고 와 후회한다.

- 부모님께 연락 자주 드리고, 아프지 말고, 여러 면에서 많이 조심해야 하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와

### ▶ 05학번이 전하는 필리핀 체험 학습 가이드

#### 현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 닭이 너무 많아 너무 시끄러워(근데 금방 또 적응 할 거야), 방안에 도마뱀이 같이 살아(이것도 금방 적응할 거야), 거리에 구걸하는 아이들(거리에서 뭐 먹으면 뺏겨), 날씨-수시로 내리는 비, 모기 팔찌 냄새(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해!), 갈전 아이들과의 생활, 주말 식사당번(밥해야해), 방 열쇠관리, 빵 조심, 개미가 많아(변기통, 빨래 줄에 엄청 많아)

#### 가장 주의 할 것

- 가방 앞으로 매야해 안 그럼 훔쳐가, 인사 잘할 것, 여자들만 다니지 말기, 다닐 때는 남자 한명이라도 끼우기, 오토바이 함부로 탑승금지, 돈 너무 막 쓰지 말기, 손목 잡히면 뺨~하기, 레드리본 가지 마, 지푸니 위(쌈 있을 때)탑승 금지, 불량식품으로 전 살은 안 빠져, 부코파이 맛있어(그래도 먹어봐), 모기는 가려서 물려야해, 옷 통 벗고 다니면 민원 들어와, 메일 주소를 받을 때는 정확히 확인해야 해, 로사와 함께하는 여행, 로사의 무한 체력, 로사에게 헛말 금지(전문가들이 온 다구), 현지에서 물티슈는 별로야, 지푸니 탈 때 전자기계는 여러모로 안 좋아, 필리핀 남자들 무서워 특히 여자들 남자들보면 피해, 늦은 시간 여자들끼리 다니지 말기, 필리핀은 총소지 가능이야, 교류를 하러 가거나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노출은 안 돼, 술, 담배 절대 안 돼

#### 꼭 해봐야 할 것

- 지푸니 위에 탑승(쌈 없을 때,이거 엄청 위험해 근데 재밌어), 스노쿨링(이거 절대 안한다고 하지만, 이거 안하면 진짜 후회한다. 이걸 진짜 필수야-현기처럼 잠수해보기 도전해보), 바다가 빠짐없이 즐기기, 수영 못해도 물놀이 꼭 해!(투브라도 가지고 가서라도 놀아), 우베마와 부코 다 먹기, 까미귀 섬에 파스텔 먹어야해, 손으로 닭고기 먹기, 봉하오의 6시에 하는 새벽 장, 그냥 다 열심히 즐겨, 다 먹어보고(맛있든 맛있든) 돈 아끼지 말고(그렇다고 너무 막 쓰지도 말고) 부끄 부끄 절대 No, 하늘 많이 보기 풍경 짱이야, 경험 하는 게 남는 거야

### 가장 크게 느낀 것 & 좋았던 것

- 돌고래랑 거북이 본 거, 합창(로복), 사람들이 엄청 친절해, 부코 아저씨, 사람들이 오픈 적 이야, 현지인들 특히 여자들 노래 엄청 잘해, 영어공부 무조건 하고 가기, 영어를 두려워하지 말기, 다시 가고 싶다, SM몰 완전 커 마을이야 근데 비싸고 볼 거 없어,

### 꼭 먹어야 하는 것

각종 웨이크, 밥은 갈리 밥(밥 리필 가능), 판싯,난조넨스, KFC(메뉴가 달라), 패스트 푸드점에 다양한 음식, 우베 어찌고는 다 맛있어, 골디락스의 브라우니, 길거리에서 파는 파인애플, 그린 망고, 풋 망고, 여러 가지 길거리 음식(튀김 같은 우리나라에 파는 건 되도록 먹지 말고), 닭 꼬치, 두리한(조금 먹으면 이상한데, 많이 먹으면 맛있어 그리고 신기한 맛이 나)파파야, 바나나, 설탕식빵, 빵 종류 다, 초코브라우니, 마일로, 닭 밥, 땅콩, 그냥 다 먹어봐! 맛있어도 맛있어도 다 먹어봐~!

### 우리들의 역할 나누기

- ♡문화 총괄 : 하늘
- ♡준비물 : 도연, 인하, 현준
- ♡선물 준비 : 우석, 민욱, 현지
- ♡자료집 : 한길 해민
- ♡보고서 : 우석, 현준
- ♡탈춤 : 하늘
- ♡풍물 : 지수
- ♡민요 : 현준
- ♡몸짓 : 헤린
- ♡수영 : 기봉

## ▶ 기타

### 민요가사

<재미있는 우리 민요 필리핀에서 신명나게 불러봅시다!!!>

#### 밀양아리랑(양산도)-경상도 민요

(받는소리)

아리당다콩 쓰리당다콩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게~~

1.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섯달~ 꽃본 듯이~ 날좀~보~소~~
2. 정든 임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과 입만 병긋
3. 울너머 총각에 각피리소리 물기는 처녀의 한숨소리
4. 담넘어 갈때는 큰맘을 먹고 문고리 잡고서 벌벌벌면다
5. 정든님이 오신다기에 껌을 벗고 잤더니 문풍지 바람에 고뿔만 들었네
6. 앞집에 선호쌤은 가족여행을 가는데 우리집 필쌤은 자전거만 타누나

#### 액맥이 타령 - 자진모리

(받는소리)

어--루~액이야 어--루~액이야 어기영차 액이로구나~~

1. 정월 이월에 드는 액은 삼월 사월에 막고  
삼월 사월에 드는 액은 오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2. 오월 유월에 드는 액은 칠월 팔월에 막고  
칠월 팔월에 드는 액은 구월 귀일에 다 막아낸다
3. 구월 귀일에 드는 액은 시월 모날에 막고  
시월 모날에 드는 액은 동지 섣달에 다 막아낸다
4. 정칠월 이팔월 삼구월 사시월 오동지 육섣달 내내  
돌아가더라도 일년하고도 열두달 만복은 백성에게  
잡귀잡신은 물알로 만대위전을 비웁니다 -- 마지막에는 받는 소리 2번하고 끝

### 통영 개타령(자진모리)- 경상도 민요

1.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가랑잎만 달싹해도 짚는~개야  
청사초롱 불 밝혀라 우리 님이 오시거든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개야 검둥개야)  
짚지를 마라 (짚지를 마라) 멍멍(캉캉) 멍멍(캉캉) 짚지를 마라
2.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개야 백설개야 (개야 개야 백설개야)  
달 그림만 비치어도 짚는 개야  
밤에중에 한밤중에 우리 님이 오시거든  
개야 개야 백설개야 (개야 개야 백설개야)  
짚지를 마라 (짚지를 마라) 멍멍(캉캉) 멍멍(캉캉) 짚지를 마라
3.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개야 누렁개야 (개야 개야 누렁개야)  
울타리만 버석해도 짚는 개야  
남의 눈에 띠지 않게 슬금슬금 오신님을  
개야 개야 누렁개야 (개야 개야 누렁개야)  
짚지를 마라 짚지를 마라 멍멍(캉캉) 멍멍(캉캉) 짚지를 마라

### 진도아리랑(중모리 또는 양산도) 전라도 민요

사람이 살면은 몇백년을 사나 개똥같은 세상이나마 둥굴둥굴 사세  
(받는소리)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닳네 예-- 아리랑 흥응응 아라리가~ 닳네

- 1.문-경 새재는~ 웬 고~~갠가 굽이야~ 굽이굽이가 눈-물이 난다
- 2.노다가세 노다가세 저달이 떴다지도록 노다가 가세
- 3.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서 지느냐 날두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서 가느냐
- 4.만경창파에 두둥실 뜬 배 어기여차 어야뒤어라 노를 저어라
- 5.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필리핀 평화여행 얼씨구나 좋구나
- 6.맥주병따개 필리핀으로 가구요 간디학교 남은 학생 복작지꼴 하누나

memo

memo

memo

## . 우리들의 여행 .

은혜샘 한길 지수 혜민 혜린 하늘 현지 인하 손샘 우석 현준 도연 기봉 민욱

